

팀 활동 평가에서 결과와 협력을 나누기

똑똑 · 에디터 새봄 · 발행 2026.09.30

산출물의 품질과 함께 작업한 과정을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수치·상황·인물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학교·제품·사람에 관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쉬운 설명

산출물의 품질과 함께 작업한 과정을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팀이 만든 결과물이 좋다고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기여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은 목표 충족·근거·완성도로 보고 협력은 약속 지키기·의견 듣기·문제 해결 기록으로 봅니다.

핵심

- 팀이 만든 결과물이 좋다고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기여한 것은 아닙니다.
- 결과물은 목표 충족·근거·완성도로 보고 협력은 약속 지키기·의견 듣기·문제 해결 기록으로 봅니다.
- 동료 평가는 친분과 기억의 편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 무엇을 구분하나요?

팀이 만든 결과물이 좋다고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기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협력 과정이 성실해도 결과물의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두 차원을 다른 칸에서 평가해야 피드백이 구체적입니다.

방법 ·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결과물은 목표 충족·근거·완성도로 보고 협력은 약속 지키기·의견 듣기·문제 해결 기록으로 봅니다. 각 기준에 관찰 가능한 행동을 씁니다. 역할이 다른 팀원을 단순 발언 횟수로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음 관찰표는 이 글에서 설계한 학생 활동 예시이며 특정 학교의 공식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 · 직접 써 보는 비교

가상 모둠이 보기 좋은 포스터를 완성했지만 출처 목록을 빠뜨렸습니다. 결과물 기준에서는 근거 부족을 기록하고, 협력 기준에서는 자료 수집·편집 분담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학생이 꼼꼼한 검산을 했다면 그 기여도 보입니다.

한계 ·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요?

동료 평가는 친분과 기억의 편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 작업 기록, 교사의 관찰을 함께 참고합니다. 이 글은 특정 학교의 성적 산정 규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예쁜 포스터지만 출처가 없는 팀에 어떤 두 피드백을 줘야 하나요?

확인 설명

산출물에는 출처 보완을, 협력 과정에는 실제 역할 수행 기록을 기준으로 따로 피드백합니다.

팀 활동의 결과와 협력을 어떻게 따로 평가할까요?

팀이 만든 결과물이 좋다고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기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협력 과정이 성실해도 결과물의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두 차원을 다른 칸에서 평가해야 피드백이 구체적입니다. 동료 평가는 친분과 기억의 편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례를 실제 학교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사례는 읽기 연습용입니다. 실제 판단에는 해당 장소·시기·대상과 원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과 출처

- OECD · PISA 2015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student-problem-solving-skills/pisa-2015-collaborative-problem-solving.html>: What is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Focus — 소통·갈등 조정·팀 조직·진행 관리 같은 협력 과정의 관찰 가능한 요소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daily-2026-10-16>